**제5차 총회**

* **개요**

|  |  |
| --- | --- |
| 기간 | 2004-09-07 ~ 2004-09-08 |
| 장소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
| 주관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
| 참가 | 6개국 27개 자치단체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산둥성, 허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
| 일본국 |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효고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함경북도, 나선특급시 |
| 몽골국 | 투브아이막, 셀렌그아이막 |
| 러시아 연방 | 사하(야쿠티야)공화국, 하바롭스크변경주, 아무르주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합의 상설사무국 경상북도에 설치 결정** |  |
|  |
|  | **▷새로운 분과위원회로 변경무역분과위원회 설치****▷동북아연합 휘장 도안 제의** |  |
|  |
| **▷2006년 차기 총회개최지를 부산광역시로 결정****▷제4차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

 |

* **하얼빈 선언**

2004년9월7일～8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이하 ‘연합’이라 함) 제5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몽고, 러시아연방 등의 27개 회원 자치단체의 112명 대표가 본 총회에 참가하였다.

본 회의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상호공존 호혜평등’의 정신에 근거하여 연합과 동북아지역의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고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총회에서 본 연합의 의장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몽고, 러시아 연방 등 각 회원 자치단체대표가 발표하였다. 총회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내의 지역간 협력의 성공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지역 내의 각 회원 자치단체간의 발전 불균형과 문화 배경 차이 등의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중의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총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 연합은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매우 중시하며 장차 분과위원회 사업의 수준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3. 총회는 일본 토야마현과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제출한 연합 휘장 제정에 관한 제안과 차기 의장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차기 총회 의제를 확정지었다.

4. 총회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주가 제출한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변경협력분과위원회의 범위는 기존 관련 분과위원회의 직능과 중복될 수 없으며 또한 동북아지역 회원 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존하는 경제무역 분과위원회와 반드시 협조하여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5. 총회는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연합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연합 상설사무국을 경상북도에 설치할 것과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총회를 거쳐 연임하는 등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6. 총회는 연합 헌장 규정에 근거하여 각 국(각 회원 자치단체)의 필요에 근거하여 연락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거듭 언급하였다.

7. 총회는 연합사무국은 헌장수정에 관한 설명과 심의를 거쳐 헌장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헌장의 수정안은 현행 헌장에 근거하여 역대 총회의 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동북아지역과 전 세계 경제발전협력의 새로운 추세를 착안하고 각 회원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기초 위에 작성된 연합의 강령 문서이다. 헌장 수정안은 상설사무국 설치, 임기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상설사무국의 성립은 연합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상설사무국은 연합을 한층 더 성숙하고 정식적인 국제 협력조직으로서 한발짝 더 매진한 것에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8. 동북아지역 각 회원자치단체간의 호혜평등에 근거한 경제무역협력을 한층 확대, 강화하고 동북아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는 각 회원 자치단체들이 비교적 구체적인 구상과 의견을 제출하였다. 총회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안건이 동북아지역의 경제무역협력발전을 촉진하고 각 회원 자치단체는 동북아지역내 각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국제박람회와 경제무역투자상담회를 적극 지지,협조하기로 하였다.

9. 연합은 각 회원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의견에 근거하여 각 회원 자치단체가 변경무역, 자원개발, 정보교류 환경보호,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10. 본 총회에서 대한민국 부산광역시가 차기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다. 본 선언문은 연합의 발전과 협력에 관해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문서로서 2004년 9월 8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 개최된 연합 제5차 총회에서 중국어, 조선 (한국) 어, 일본어, 몽고어, 러시아어의 5종의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각각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